

작품 내용

제 목	보이지 않는 이름의 무게 : AI 시대에 다시 쓰는 저작권
내 용	매일 아침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다. 거의 습관처럼 반복되는 이 행위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다. 누군가의 밤을 지워 만든 소리, 누군가의 하루를 갈아 넣은 리듬, 그리고 ‘이름’이 붙은 창작물과 내가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다.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음악을 그저 당연하게 주어지는 공기처럼 소비했다. 재생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귀에 도달했는지, 그것이 어떤 권리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콘텐츠 저작권 관련 교육을 듣던 중 강사의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강하게 내리쳤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이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보이지 않던 창작자들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아무도 없는 작업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건반을 누르는 사람, 빛이 잘 들지 않는 방 한쪽에서 문장을 고쳐 쓰고 또 고쳐 쓰는 사람,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이 세상에 나가기를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내가 소비하는 모든 콘텐츠가 누군가의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더 이상 그것들을 무심히 소비할 수 없었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은 단순한 법률 조항을 넘어,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누군가의 결과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순간, 우리는 규칙을 어기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밤을 빼앗는 셈이 된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물은 너무 쉽게 복제되고 너무 빠르게 휘발된다. 몇 번의 클릭으로 파일은 무한히 복사되고 출처는 지워지며, 원작자의 이름은 점점 흐릿해진다. 편리함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 과거의 나 역시 이러한 무감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큰 죄책감 없이 영화 파일을 공유받아 보기도 했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개인 블로그에 퍼 나르기도 했다.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인터넷 공간의 데이터들을 일종의 ‘공공재’로 오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였고, 나의 가벼운 선택이 창작자에게는 깊은 상처와 허탈감을 안겼을 실책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을 맞이했다. 마우스 클릭 몇 번, 명령어 몇 줄이면 몇 초 만에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그럴싸한 글이 작성되며, 세련된 멜로디가 만들어지는 시대다. 생성형 AI가 가져다준 효율성은 경이롭지만, 그 편리함의 그늘에는 또 다른 저작권적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다. AI가 학습한 수만 권의 책, 수억 장의 이미지, 수만 시간의 음악 뒤에는 여전히 인간 창작자들의 뼈아픈 노동과 독창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AI의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가져다 쓰거나, 타인의 화풍과 문체를 그대로 모방하여 마치 자신의 순수한 창작물인 양 포장하는 행위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표절이자 변형된 권리 침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작권을 지키는

일은 더 복잡해졌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기술은 창작을 돕는 도구일 뿐, 타인의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가로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AI를 활용할 때조차 데이터의 출처를 고민하고, 정당한 대가가 창작자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질문하는 태도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태도는 거창한 법적 투쟁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경로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올바르게 출처를 밝히며, 타인의 창작물에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는 아주 작은 일상적 실천에서 시작된다. 핵심은 ‘의식의 전환’이다. 내가 지금 보는 이 이미지가 누군가의 고뇌일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소비하는 이 콘텐츠가 누군가의 생계 및 존엄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 이 작은 인식이 모여 사회 전체의 문화적 토양을 바꾼다.

회사 업무를 할 때도 내 행동은 달라졌다. 이전에는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빠르게 만드는 데만 급급해 인터넷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끌어오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무료 라이선스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료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다. 처음에는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과물은 오히려 내 마음에 깊은 안도감과 몇몇함을 주었다. 누군가의 권리를 해치지 않았다는 확신이 결과물의 진짜 가치를 더 높여준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그것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온전히 보호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사회에는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싹틀 수 있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는 결국 우리 삶의 스펙트럼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 아침도 나는 지하철에 올랐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멜로디를 들으며 이제는 무심히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소절과 소절 사이에 숨겨진 창작자의 보이지 않는 이름을 상상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짝박하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넨다. “좋은 작품을 세상에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나의 하루가 위로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의 맥박을 뛰게 하는 숨은 규칙이다. 기술이 아무리 진화하더라도 창작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인간의 성숙한 태도는 대체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방 안에서 새로운 창작의 씨앗을 틔우고 있을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지는 그들의 이름에 합당한 무게를 부여하는 것이다.